

연극으로 보는 작곡가 윤이상의 삶

‘윤이상, 나비 이마주-어느 작곡가의 기억’, 대학로 정미소 극장서 11월 18일까지



탄 생 90년을 맞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1917~1995)의 파란만장한 삶이 한편의 연극으로 옮겨진다. 11월 18일까지 서울 대학로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공연되는 ‘윤이상, 나비 이마주-어느 작곡가의 기억’(홍창수 작, 유우영 연출, 은세계 씨어터컴퍼니 제작)이 바로 그것이다.

윤이상은 1956년 뒤늦게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이듬해 독일 서베를린 음대에 입학한 후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을 발휘해 주목을 끌었다. ‘나비의 미망인’, ‘류통의 꿈’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생전 당시 ‘현존하는 유럽의 5대 작곡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뮌헨 올림픽 축전에서는 정중동의 동양적 정서를 담은 오페라 ‘심령’을 선보여 호평 받았다. 하지만 화려한 음악적 성과와는 달리 한 인간으로서의 행복하지 못했다. 남북 분단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었으며, 동백림 사건 때 간첩으로 몰려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돼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생전에는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대충 그의 삶을 들여보면 연극적 요소를 굳이 가미하지 않더라도 삶 그 자체가 영화고 연극이다. 이번 연극 ‘나비 이마주’에는 부제가 붙어있다. 어느 작곡가의 기억이다. 관객들에게 작곡가가 죽는 날까지 고향에 갈 수 없었던 아픔을 전달하려는 작가의 계산이다. 연극은 윤이상을 지배했을 법한 기억들이 그가 만들어낸 음악과 어우러져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동백림 사건 때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당하고, 배틀린 망명 도중 고향 통영을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등 선생의 삶과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간다. 배우 최홍일이 윤이상, 유화영이 윤이상의 부인 이수자, 박경근은 윤이상을 감시하는 요원 박성만 역을 맡아 극을 이끌어간다. 바이올린과 첼로, 플루트, 오보에 등 현악기와 목관악기로 구성된 4중주단이 ‘고풍의상’

‘나그네’ 등 윤이상의 초기 가곡과 대표작 ‘이마주(Images)’, ‘무악’, ‘첼로협주곡’ 등을 연주하며 연기자들과 호흡을 맞춘다. 작곡가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답게 윤이상의 음악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인물 위주의 시간 흐름에 따른 전개를 피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윤이상의 기억을 입체적으로 재현해내기 위해서 3차원 영상이 도입됐다. 윤이상이 북한 방문 때 보았던 강서고분의 사진도, 외신으로 접한 1980년 5월 광주의 기억이 영상과 배우들의 몸짓으로 표현되며 끝내 고국에 돌아올 수

없었던 그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한다. 작품은 윤이상이 베를린 작업실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사모곡을 작곡하던 중 납치되는 것으로 시작, 그의 음악적 열정과 상처입은 삶을 감동적으로 전한다. 음악감독 정진현, 무대디자인 김진홍, 조명 김철희, 영상 김진태, 의상 송은주, 분장 안경순, 조연출 이은주, 무대감독 안지애, 프로듀서 이몽준, 사진 박성준 등이 각각 맡았다. 평일 8시, 토 4시·7시30분, 일 3시, 1만 5000~3만 원. (02)747-2250

김주일 기자



부석사 괘불 특별展

국립중앙박물관 내년 4월 17일까지

괘불(掛佛)은 아의 의식에 걸기 위해 제작한 불화를 뜻한다. 대부분 탁 인실 외에도 주변을 압도할 수 있는 큰 화폭에 그려졌는데 몇몇은 높이가 10m 이상인 경우도 있다. 1684년 조성된 ‘부석사 괘불(사진)’ 역시 펼친 높이가 9.25m, 너비 5.77m에 이르는 초대형 괘불로 70여 명의 인물이 모여 설법회를 갖는 장면이 화폭에 가득 담겨져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은 내년 4월 27일까지 박물관 2층 불교화실에서 부석사 괘불 특별전을 마련한다. 부석사 괘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면 가운데 배치하고 설법을 듣기 위해 영취산에 모여든 청중의 모습을 재현했다. 그 뒤에 다시 세 명의 부처님을 표현했는데 이는 ‘부처는 무수히 많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라는 부처관을 담고 있다. 괘불의 회기(畵記)에는 1745년 이를 보수해 청풍 신록사로 보낸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부석사는 이 괘불을 보수하면서 또 다른 괘불 한 점을 조성했는데 이 괘불 역시 높이 8.1m에 달하는 대형으로 현재 부석사에 보관돼 있다. 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에서 1684년 작 부석사 괘불의 안료와 화폭, 채색층과 채색기법 등을 조사한 결과를 도록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02)2077-9000.

조동섭 기자

오케스트라 선율에 실은 사랑

니르바나 필하모닉 자선음악회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가 소아암으로 고통을 겪는 어린이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섯 번째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11월 7일 오후 7시 30분 KBS홀에서 열리는 연주회는 지휘자 장문혁씨가 지휘봉을 잡았다. 이익선 아나운서가 사회를, KBS어린이음악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지혜 씨가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 내레이션을 맡아 생동감 있고 즐거운 음악회로 꾸밀 예정이다. 이태리 ‘올해의 음악가상’에 빛나는 피아니스트 김성

희씨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1번 2악장’, 색소폰 연주자 이인권의 ‘Going home’ 등도 관객을 반긴다. 니르바나 오케스트라는 지난 4년 동안 네 번에 걸쳐 자선음악회를 열어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치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해왔다. 강형진 단장은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소아암 어린이와 그 가족을 향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소아암 어린이에게 안락의 희망을 주고, 그의 가족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도움을 드림으로써 ‘따뜻한 나눔의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정규 프로그램 외에 깜짝 이벤트도 마련돼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02)718-4599

강지연 기자

현대불교문인협회 가을창작수련회

현대불교문인협회(회장 수완)와 계간 <불교문예>가 11월 3~4일 전남 광주와 지리산 일대에서 가을 창작수련회를 연다. 현대불교문인협회 광주전라지회(회장 김기리 시인, 광주극장 회장)의 창립을 기념해 마련한 수련회는 광주 광제사와 무등산, 담양 죽곡원, 구례 죽림정사, 지리산 천은사와 화엄사 일대를 돌아볼 예정이다. (017)227-8084

강지연 기자

詩講로 떠나는 임자기명 ㉔

영축산 자장암

장인성 시인



자장암(慈藏庵)-통도사 부속암자로 불쑥 솟은 암벽에 붙여 세운 법당이 흡사 바위가 피워둔 꽃처럼 보인다. 그림 : 이상배 화백

영축산 자장암을 한바퀴 둘러보다 찬찬한 바위돌이 제 몸을 열고 꽃모양이 환하게 피워낸 걸 보았다. 바위도 나이가 지긋해지면 꽃갈던 옛날이 저렇듯 그리울까 꽃송이를 끌어안은 단단한 어깨 살아서는 절대로 풀릴 것 같지 않다.

석청은 땀에다 발라먹는 일반 꿀이 아닙니다.

네팔산 석청은 수백년 산삼에 버금가는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서 채취되는 “꿀”을 말하며 깊은 산의 절벽이나 바위틈에서 “아피스 라보리오사”라는 왕벌이 만들어 내는 야생 꿀이다. 네팔과 티베트의 접경지역인 해발 3500~4000m의 고산지대에서 주로 벌이 서식하며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사나운 벌로서 꿀을 만들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으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한다. 고질병 치료, 건강식품이며 세포재생, 노폐물 제거 등 명약으로 알려져 네팔왕국에서 국가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게 답례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공급처 : 네팔왕실-국립히말라야 석청연구소
국내보급처 : 한국불교사찰총연합회,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히말라야 석청이란?

히말라야 석청(WILD HONEY)은 네팔과 티베트의 접경지역인 해발 3000m~4000m의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고산지역의 수백미터에 달하는 기암절벽에서 채취하는 꿀로써 성경과 불경에도 이 꿀을 약용 또는 참선시 음용하는 신비의 물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만을 찾아 아피스라보리오사(APIS LABORIOSA)왕벌이 집을 짓기 때문에 석청을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기암절벽에 집을 지으면 수십년~수백년 동안 그 지역에서 서식을 하며 300년 이상 된 것 도 있어 이런 곳에서 채취하는 석청을 효험이 큼니다.

*300년 이상 된 석청은 네팔 내에서도 구경하기조차 힘듭니다. 아마 한국의 심심산골에서 몇 백년 된 산삼을 찾는 일에 버금가는 희귀성이 있을것입니다. 가격 또한 엄청나서 이런 석청을 발견하면 배랑개 사는 고산족 마음은 축제 분위기로 바뀝니다. 다만 워낙 귀한 꿀이라 네팔 전역에서 1년에 한 두번 발견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네팔에서는 참석청을 구하기 힘듭니다. 참석청은 1kg에 250만원정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취급하는 석청은 등외급입니다.

- 서울 02)3436-7845 ● 중부 031)634-3519
- 대구/경북 054)464-4735 ● 부산/경남 051)782-9386

문의 010-2039-5288, 010-5031-1355

보급가액 500g ₩ 500,000원

석청판매 수입금중 일부는 네팔 불우청소년들을 위해 적립됩니다. 석청3명 이상 구입시 석청 채집 CD 1장을 보내드립니다.

